

아침세평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예술행정

김홍석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예술기관 종사자로서 살아온 시간이 되돌아본다.

45여년의 시간을 문화예술에 묻혀 살고 있다. 좌절도 맛보았지만 이는 나를 성장시켰고 긍정적이고 좋은 기억이 더 많다.

광주문화재단에서 15년 동안 종사하다가 사무처장으로 승진 임기를 마쳐가며 문화예술 현장과 문화예술기관 종사자로서 흔적을 되돌아본다.

문화예술행정의 개선과 혁신, 예술가들의 활동은 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예술가와 시민 모두의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매진해왔다.

평소 생각해왔던 예술과 행정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소신을 제안코자 한다.

먼저, 디지털화 및 기술 활용이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예술 작품을 온라인으로 전시하거나 공연을 스트리밍하는 등의 방식으로 더 많은 관객을 유치하고,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관객의 취향과 행동을 분석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예술가와 시민의 소통 강화다. 예술 활동은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밀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술가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워크숍, 공연, 전시 등을 진행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관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문화예술이 삶 속에 자리할 것이다.

셋째,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이다.

문화예술 행정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예술가들이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술가들이 행정적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면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다.

문화예술기관은 예술 지원 정책을 명확히 안내하고, 예술가와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다.

예술 활동은 일시적인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및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들이 안정된 경제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품의 브랜드화를 위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예술행정이다.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예술가들과 관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소수자, 여성 등 다양한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을 지역적으로 평등하게 제공하여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분배와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집단의 의사를 존중하는 행정과 정치가 어우러진 예술경영의 글로벌화이다.

글로벌 문화예술 트렌드를 반영해 국제적인 예술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해외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국제 전시나 축제 개최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광주가 갖고 있는 문화자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문화예술은 예술가, 행정, 시민이 서로 협력하여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예술가들은 창작의 자유와 경제적 안정을 원하며, 행정 측은 예술의 실효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술가가 바라는 창작의 자유와 경제적 지원, 행정이 바라는 예술 활동의 질적 향상과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 시민들이 바라는 문화예술의 접근성과 지역 특성에 맞춘 활동이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문화예술 행정에서의 혁신은 각자의 바람을 반영해 예술가와 시민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확대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화예술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고

자립준비청년의 미래를 위한 이야기

황인숙

광주시자립지원전담기관장



이번 기고를 준비하기 위해 학창 시절에 봤던 '갈매기의 꿈'을 읽고 서점에서 다시 사서 봤다. 대부분의 갈매기는 비상의 가장 단순한 사실, 곧 먹이를 찾아 해변으로부터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 이상의 것을 배우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갈매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것이 아닌 먹는 것이었다. 하지만 갈매기 조나단은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자립청년도 조나단처럼 홀로서기를 위해 각자의 힘겨운 날갯짓을 하고 있어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부모의 부재,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던 아이가 아동복지시설(보육원, 그룹홈)에서 보호를 받으며 거주하다가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돼 홀로서기를 준비한다. 이 아동들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한다. 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곳에 근무하고 있다.

자립준비 5년 차인 A청년은 지난 2023년 자립준비청년 커뮤니티 '한울'을 설립·운영하며 대표로서 자립준비청년의 공익을 위해 힘썼고, 광주시자립지원전담기관 바람개비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보호 종료료를 앞둔 후배의 자립 준비를 도왔다.

B청년은 2023년 처음 만날 당시, 심리적 어려움과 정서적 취약 과정에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자립지원전담기관은 B청년에게 심리상담, 오피스텔 일부 지원금, 취업을 위한 NCS 교재, 토익 교육비 등을 지원했다. 이 청년

은 목표를 세워 사회복지 분야 유명기관의 계약직, 정규직을 거쳐 모 공단의 자립준비청년 전행에 최종 합격이 됐다.

C청년은 대학 졸업 후 일을 하던 중 직업에 대해 고민하게 되면서 편입을 준비했다. 편입에 성공한 그는 4학기 등록금이 마련돼 직면했다.

그는 광주시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 학회를 통해 4학기 등록금을 지원받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학과 수석을 해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처럼 광주시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관리 중인 청년의 자립 이야기는 다양하다.

광주지역의 자립준비청년(2025년 1월 기준)은 총 525명으로 동구 63명, 서구 148명, 남구 85명, 북구 113명, 광산구 116명으로 조사됐다. 매년 40여명이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보호시설에서 퇴소 후 자립 준비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자립전담기관은 지난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된 자립 성공을 위해 광주시와 시의회, 광주도시공사, 광주시체육회,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력그룹감사협의회(한전KDN), 빛가람감사협의회(한전KPS) 등 10개 기관과 협업해 자립준비청년 지원 세부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광주한방병원협회, 광주도시공사,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지방변호사회, 호남대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립준비청년의 건강, 심리 정서, 주거, 법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은 본인에게 맞게 미래를 설계하도록 광주시자립지원전담직원이 주저부터 생활, 은행, 취업 등을 하나하나 같이 설계하면서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을 현행 23세에서 34세로 상향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취업 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연령을 34세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며,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취업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취업 지원 연령이 사실상 23세까지로 제한되면서 자립준비청년이 실제로 활발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20대 중·후반에는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보육원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보호 종료 확인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는데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함께 키워야 한다'란 아프리카 속담처럼 인구절벽인 한국 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끝까지 보호할 수 없지만 성공한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갈매기의 꿈' 책자 마무리 부분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 그대의 진정한 자아가 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어떤 것도 그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란 문구처럼 우리 청년이 비상할 수 있는 이곳, 광주시자립지원전담기관의 존재 이유다.

취재수첩

원·달러 환율과 지역경제

송대웅

경제부 차장



우리나라에 원·달러 환율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45년이다. 국내에 수입된 미군정이 정한 것인데, 그 당시 원화 15원(현재 원화로는 0.015원)이 1달러였다고 한다.

때문에 정부가 공식 인정한 대한민국의 최초 고정 환

율은 0.015원이 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의 추이에는 민중의 고라미 묻어있다. 오르내림의 여파에 따라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시점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부터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국내 원·달러 환율은 844.2원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1달러에 2000원에 근접할 정도로 수직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2000년 들어 9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이후 1000~1200원 수준을 보였다.

요즘 또 다시 원·달러 환율이 이슈다.

5월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55원=1달러이다. 1년 전(1333원=1달러)과 비교해 10% 가까이 올랐다.

이처럼 요동치는 원·달러 환율로 인한 어려움은 상당하다.

최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수출입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지역기업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율 상승과 관련,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9.0%에 달했다. 최대 이유로는 생산단가 상승이 27.0%로 가장 컸다.

대응 방법으로는 원가절감(39.0%) 응답이 가장 많았다. 차수는 환율에 원가절감으로 생산비 증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OPINION

2025년 3월 6일 목요일

사설

'목포뮤직플레이' 행사 성공하길

목포시가 5월 23~25일까지 3일간 목포종합경기장 일원에서 '목포뮤직플레이' 행사를 개최한다.

'목포, 음악이 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목포가 음악도시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진다고 한다.

축제 명칭인 뮤직플레이는 목포의 영어 명칭 'Mok-Po'의 앞글자 'M'과 'P'를 따와 만들었다. 'M'은 음악(Music), 'P'는 놀다(Play)라는 뜻으로, '음악으로 놀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번 축제에는 국내 최정상급 K-POP 아티스트를 비롯해 힙합과 락 뮤지션 등이 참여한 대중음악과 K-POP을 즐길 수 있는 공연과 '목포'를 표현한 창작곡 경연대회도 열린다.

또 지역 예술인의 프리지 공연, 악기 연주 체험존과 전시 콘텐츠 행사 등 목포만이 가진 분위기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소품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사실 목포는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난영을 비롯해 김해송, 이봉룡, 김시스터즈, 남진, 오정해, 박애리,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락커' 김경호 등 다수의 걸출한 음악가를 배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부터 오랫동안 애창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곡이다.

목포항을 배경으로 이별의 끝없는 아픔과 서러움을 가사로 표현한 이 노래는 이난영 특유의 비음과 흐느끼는 창법으로 일제시대 나라잃은 슬픔을 달래주는 상징적인 곡으로 인기를 끌었다.

1970~80년대에는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받는 전라도의 한을 표출하는 노래로 목포 출신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애창곡이었고 호남 지역 연고 프로 야구팀 해태 타이거즈의 비공식 응원가였다.

목포시의 관광거점 사업의 하나로 2022년에 이어 3년만에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이 찾는 젊은 도시 목포'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광주·전남 학령인구 감소 심각

광주·전남지역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최근 전남지역 초등학교 32곳이 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하지 못했고 광주도 사정은 비슷하다.

실제로 1907년 개교한 118년 전통의 지역 명문 광주 중앙초등학교는 지난 4일 신입생 1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홀로 입학식'을 열었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3명이 입학했다고 한다.

광주 구도심에 위치한 이 학교는 1970~1980년대만 해도 학급수 90여개, 학생 수가 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큰 학교였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인구감소와 도심공동화 현상의 직격탄을 맞았고 현재 전교생이 23명에 불과한 초미니 학교로 전락했다.

올해 광주지역 155개 초등학교중 입학생 10명을 채우지 못하는 이같은 '초미니' 학교는 중앙초를 비롯해 무학초, 송학초, 임곡초, 본량초 등 9곳이나 있다. 또 신입생 수가 15명미만인 초등학교도 17개교나 달한다고 한다.

이같은 현상은 광주의 학령인구가 해마다 감소해 이제는 1만명대 밑까지 추락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 초교 입학생은 9969명으로 전년보다 1423명이 줄어 들었다. 2023학년도 1만2538명, 2024학년도 1만945명 등 매년 1000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남은 문제가 더 심각해 올해 지역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수는 1만10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047명이나 줄었다.

도내 초교 신입생 수도 2023년 1만2881명, 지난해 1만1155명 등 매년 1000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여수 안일·돌산·화정초, 보성 울어·북내초 등 도내 32곳은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하지 못했다.

전남도교육청 운영 지침 상 3년 동안 신입생이 없을 경우, 여론을 수렴해 학교 폐교 절차에 들어가야 해 올해 10개 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다. 올해 2년째 신입생이 없는 도내 초교는 17곳에 달한다.

문제는 저출생에 수도권 집중화 현상까지 가속화되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와 교육당국의 젊은 가정의 지방과 농촌 유입을 견인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개선책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Table with columns: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여균수, 편집국장 최현수. Includes contact info for Gwangju City and various departments.